

2023년을 통계로 점검하고 진단하자



이 상 현 **의**
창업 칼럼

창업은 수치와의 전쟁이다.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수, 객단가, 마진율, 회전율, 경상비, 수익률 등은 모두 수치화해 경쟁력을 확인해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산업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사업체 수는 2021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대비 숙박업·외식업은 7.5%인 약4만9000개가 늘었다. 뒤를 이어 제조업도 3.7%인 1만3000개가 증가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업은 0.11%(110개)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업종별로 전부 감소했다는 점이다. 종사자 중 비임금 종사자는 증가했으나 임금종사자는 줄었다. 사업체 수에서 증가를 보인 숙박·음식업에서도 종사

자 수는 전년 대비 16.2%인 25만2000명이 감소했다. 사업체 수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임금 종사자에 비해 비임금 종사자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임금 종사자 수가 감소한 배경에는 무인과 1~2인 소자본 창업 증가가 있다. 창업시 수익성과 직결되는 항목으로는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변동성 비용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업종 선택부터 고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간 무인창업이나 1~2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무인아이템의 특성상 서비스가 부족하고 고객들의 지속적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매출이나 수익성 기반에서 실효를 거둔 아이템이 거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코로나 정국이 창업시장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바꿔 놓았다. 코로나19 전에도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그 몇 배로 소상공인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수인 BSI는 71~90사이를 널뛰기 한다. 창업도 힘들지만 이미 창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그에 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년도 대비 약 18.5% 상승한 원부재료비율과 함께 일반 관리비인 전기, 가스 등 경상비는 지난 3년간의 상승률을 넘어선 약 17.5%로 이미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 어떤 지원이나 대책도 전무하다.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의 부족은 젊은 층을 창업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매출과 수익성을 위한 비대면, 저인력 그리고 저자본적 창업 아이템에만 관심이 쏠리는 기형적 창업 환경이 형성됐다. 결국, 어려운 창업 환경에서 스스로가 사업을 객관화해 돌아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2023년을 수치화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건설정책 박사)

현대차, 수출 300억弗 성과... 올 ‘최고 수출의 탑’

무협,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현대차, 전년비 실적 약 30% 상승
기아·LG이노텍·삼성SDI 등도 수상

현대자동차가 올해 자동차 수출 300억 달러 성과로 한국무역협회가 주는 영예의 ‘최고 수출의 탑’을 받는다.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교역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거둔 596명이 정부 포상을 수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 한 해 세계 교역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무역 업계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역의 날은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제정된 후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고, 지난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매년 12월 5일 개최되는 ‘무역의 날’ 기념식 6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에서 무역협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협

바뀌 기념하고 있다. ‘수출 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에서는 현대자동차가 300억달러로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전년 대비 약 30% 상승한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기아가 200억불 수출이 탑을 수상했으며, LG이노텍 100억불, 삼성SDI 60억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하는 등 총 1704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

의 탑은 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경신할 때 수여한다.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대기업 36개사, 중견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1555개사)의 91%는 중소기업이 차지했으며, 산업군 별로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출 유공자 부문에서는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전세호 심텍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윤종찬 비엠티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케이지 모빌리티 정용원 대표 등 6명이 은탑산업훈장을,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 양국석 대표 등 9명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592명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단체표창은 지역수출 지원을 촉진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충청남도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2월 5일 (음 10월 23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도 아름답다. 48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 난다. 60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72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84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소

37년생 경관은 넓고 화려하나 머물 곳이 없다. 49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 의식이 일어난다. 61년생 입안의 허쳐럼 구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7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85년생 심신을 닦고 집안도 청결히 닦자.

 호랑이

38년생 백(魄)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50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협력자. 62년생 오늘의 풍요는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4년생 녹색이 행운을. 86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뗄 수 없이 친한 친구가 있어 감사.

 토끼

39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51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63년생 보험으로 남은 노후대비를 조금씩. 75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된다. 87년생 부인으로 인해 손재수.

 용

40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52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64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76년생 부지런하여 앞서가는 사람을 본받도록. 88년생 떠나간 인연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뱀

41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53년생 이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65년생 약속이 겹치지 않도록 메모하라. 77년생 하나를 주고 두개를 얻는다. 89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말

42년생 잠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54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어라. 66년생 횡재의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78년생 뒷사람을 도우니 성과가 온다. 90년생 풍과 보리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지 말자.

 양

43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독심으로 밀고 나가자. 55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67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79년생 중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91년생 조상 땅을 팔지 말고 문중을 돌봐보라.

 원숭이

44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56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다. 6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80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92년생 이웃 간에 소음이라도 다루려 하지 말고 양보하며 해결.

 닭

45년생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아들이 기가 막혀서 우울. 57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69년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81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93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陰의 영역에서 시작이니 자랑 말라.

 돼지

46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58년생 평생 부모님 생신날 효를 행한 적이 없어 후회. 70년생 골치 아픈 일은 조연을 구하여 처리. 82년생 간교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9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쏟아라.

 돼지

47년생 액운을 막아주는 풍속을 따르는 것도 지혜. 59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71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초전. 83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95년생 좋은 기운은 나은 삶을 이끌어주니 긍정과 겸손을.

김상회의四季 바라지 마라

현재의 처지에 지나쳐 보이는 과도한 선물을 요구할 때 부모들은 아이에게 과제를 내준다. 시험 점수를 얼마 올리던지 집 안 청소를 한 달간이라도 깨끗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도 역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천지신명이나 불보살님들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때 쓰는 아이 달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간사 세계에서는 통할 수도 있는 방법이겠지만 육계 천상이나 색계의 세계에서는 지극한 정성과 하심만이 천신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꾸준한 건강관리는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을 키워주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듯이 기도의 생활화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습관은 정신적으로도 샅된 기운이 범접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우주의 기운이 자석처럼 와서 돕게 하는 신묘한 힘을 갖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에 걸리는 일을 반성하게 되면 같은 실수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의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마음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가피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람을 깊어지게 한다. 복 받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일 뿐 내면과 영혼을 깊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무조건 바라는 마음을 목적으로 삼지 말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 특히 어머니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정성스레 물 한 그릇이라도 받아서 장독대에 올려놓으시고는 먼 길 떠난 가족은 물론 식솔들의 안녕이나 무탈을 빌던 모습은 그 자체로 치유를 보는 듯하다. 필자의 경우 뭔가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작은 안도감이 들며 이렇게 하면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쓴 느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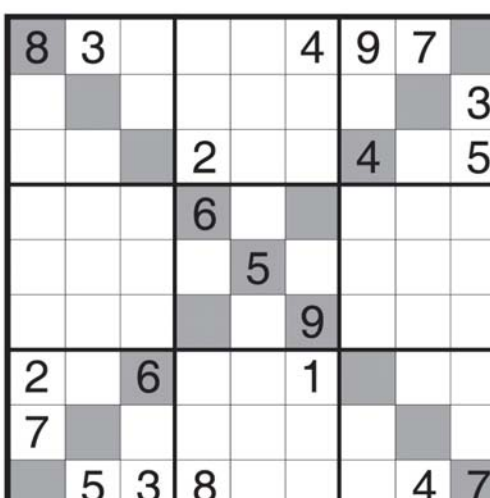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